

# Deloitte Insights

'24년 8월 자동차 구매의향지수 리포트

국내 소비자 자동차 구매의향지수,  
전월 대비 7.2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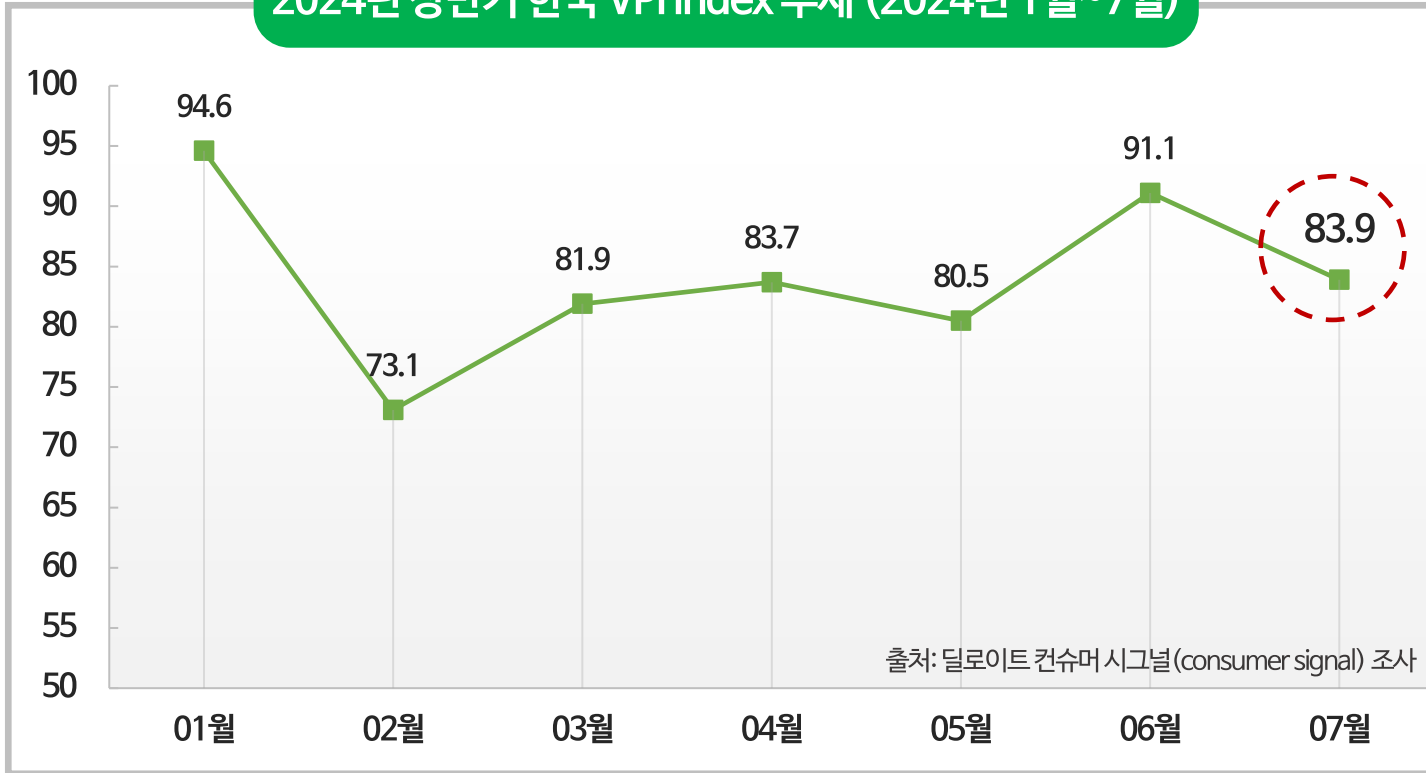


# 한국 소비자 자동차구매의향지수 (VPI Index)

국내 소비자 VPI는 2024년 7월 기준 83.9로 전월대비 7.2p 하락

\*VPI Index: Vehicle Purchase Intent Index

## 2024년 상반기 한국 VPI Index 추세 (2024년 1월~7월)



구매의향 ↑ 상승예상	요인	요인 설명
	판촉 경쟁과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5대 자동차 업체 판촉 경쟁 과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차) 인증 중고차 보상 판매 확대 및 신규 할인 프로그램 출시</li> <li>(기아) 단기 소액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진행</li> <li>(KG 모빌리티) 차량 구매자 휴가비 지원</li> </ul> </li> </ul>
	전기차 가격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할인 경쟁 (신차 할인 및 기간 한정 이벤트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 EV 충전인프라 연계 구매혜택 (충전기 설치 아파트 거주고객 대상 혜택)</li> <li>(현대, 기아) 정부지원 프로그램 가입 (일부 차량 100만원 지원)</li> </ul> </li> </ul>

↓ 하락예상 구매의향	소비심리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금리, 고물가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년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 하향수정 (1.8% → 1.7%, KDI)</li> <li>'24년 2분기 적자가구(소득 대비 지출이 많은 가구) 3년만에 최대</li> </ul> </li> </ul>
	할부 금리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개 카드사 자동차할부 금리 연 4.8%~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최고 금리가 4%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급등한 수치</li> </ul> </li> </ul>
	전기차 사고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차 사고가 연일 보도되어 소비자들 불안감 증가</li> </ul>

# 한국 소비자 자동차 구매 동인 조사 결과

절반 이상 소비자가 고가 품목 구매 계획을 연기하고 있으며, 신차 구매 희망 이유도 유지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을 반영

## 차량 구매를 원하는 TOP3 요인

	조사항목	'24년 6월	'24년 7월
01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의 유지 관리 비용 부담이 크다	16%	23% (▲)
02	타사 혹은 다른 모델의 차량을 원한다	24%	19% (▼)
03	신차에 탑재된 최신 기능과 성능을 원한다	22%	17% (▼)

## 차량 구매 시 가계 재정적 우려 요인

	조사항목	24년 6월	'24년 7월
01	고가품목 구매 계획 연기	53%	55% (▲)
02	현재 저축금액 소진	46%	48% (▲)
03	기타 생활 대금 납부 연체	22%	21% (▼)
04	신용 카드 이용 대금 증가	14%	15% (▲)

## 현재 차량 구매에 관심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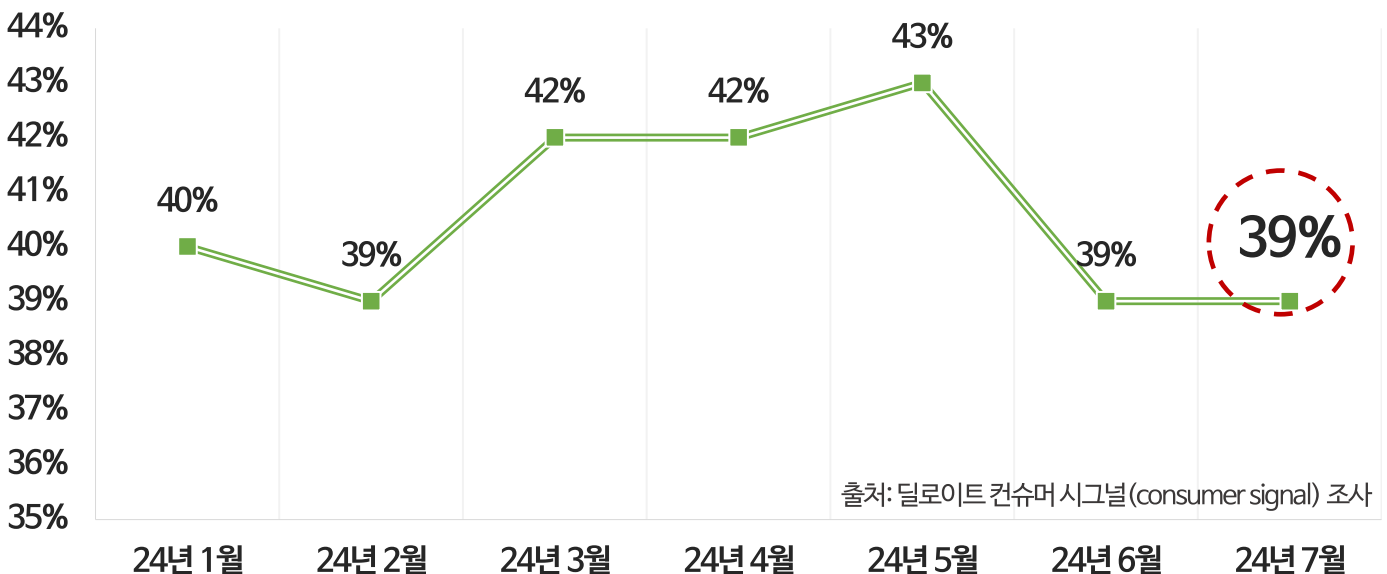
현재 보유한 차량의 성능에 만족하며, 내 주행 요구를 잘 충족시킵니다.	42% (‘24년 6월)	45% (▲) (‘24년 7월)
--------------------------------------------	------------------	----------------------

# 국내 전기차 구매 의향과 소비자 행동 분석

전기차 구매 의향은 전월과 동일하지만, 일 평균 주행거리와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 선호도는 감소했으며, 연료 가격 상승 우려가 전기차 구매 의향 증가를 견인하지 못함

## 한국 소비자 전기차 구매 의향

전기차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



## 한국 소비자들의 모빌리티 행동 데이터

### 주당 평균 재택근무 일수

'24년 6월	'24년 7월
2.3일	2.3일 (-)

### 일일 평균 주행 거리

'24년 6월	'24년 7월
35km	30km(▼)

### 다음 달 연료가격 상승 전망 비율 (다소상승/매우상승 응답 포함)

'24년 6월	'24년 7월
50%	59%(▲)

### 차량 구매시 온라인 채널 선호 비율

'24년 6월	'24년 7월
21%	19%(▼)

- 평균 재택근무 일수는 2.3 일로 전월과 동일하지만 일 평균 주행 거리는 감소
- 다음 달 연료 가격 상승 예상 소비자 비율은 59%로 전월 대비 9% 상승
- 차량 구매시 온라인 선호 채널 선호도는 낮은 수준

# [조사개요] 딜로이트 자동차 구매 의향 지수

전 세계 24개국의 18세 이상 소비자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 의향을 조사하여, VPI 인덱스를 도출하였으며, 이 결과는 인사이트 앱을 통해 배포되었습니다



## 조사 대상

전 세계 24개국, 국가별 18세 이상, 1,000명 이상 소비자

### 유럽 (12)

영국,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폴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 중동 및 아프리카 (3)

사우디아라비아, UAE, 남아프리카 공화국

### 서남아시아(1), 동북아시아(3)

한국, 중국, 일본, 인도

### 남미(2)

브라질, 멕시코

### 북미(2)

미국, 캐나다

### 오세아니아

호주



## 조사 기간

☑ 매월 22일 ~ 28일



## VPI Index 산출 방법

☑ 매월 향후 6개월내 차량 구매 의향을 나타내는 소비자들의 비율을 지수화

☑  $\text{당월 VPI 지수} = (\text{기준월 값} = 100) * (\text{당월 구매의향 소비자 비율} / \text{기준월 구매의향 소비자 비율})$

\*2021년 10월 VPI = 100



## VPI Index 수록 채널



# 딜로이트 자동차 산업 전문팀

한국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는 모빌리티 시장 환경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자동차 산업 전문팀은 모빌리티 기업들에 대한 오랜 서비스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자동차 산업 전문팀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해왔으며, 고객들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회계, 세무자문 국내외 M&A, 해외 진출 전략 등 전통적인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 고객 경험 혁신 자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산업의 수많은 과제와 혁신을 고객과 함께 해왔습니다.

딜로이트 자동차 전문팀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는 모빌리티 시장 환경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Contact Point



### 김태환 파트너

자동차산업 전문팀 리더 | 딜로이트 컨설팅

☎ Tel : 02 6676 3756

✉ E-mail : taehwankim@deloitte.com



### 황승희 파트너

자동차산업파트너 | 회계감사부문

☎ Tel : 02 6676 1642

✉ E-mail : seunhwang@deloitte.com



### 이종범 파트너

자동차산업파트너 | 경영자문부문

☎ Tel : 02 6676 1637

✉ E-mail : jongblee@deloitte.com



### 임홍남 파트너

자동차산업파트너 | 세무자문 부문

☎ Tel : 02 6676 2336

✉ E-mail : honglim@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 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Deloitte.

## Insights

### 성장전략부문 리더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mailto:jaehoson@deloitte.com)

###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mailto:dongjeong@deloitte.com)

### 연구원

이소윤 Consultant

[soyunlee@deloitte.com](mailto:soyunlee@deloitte.com)

### Contact us

[krisightsend@deloitte.com](mailto:kri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저작권자")에 귀속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기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를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를 출처로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